

□ 르쵸-5·18 묘역을 다녀와서

혁명으로 다시 태어난 5월 광주

민주화를 위한 항쟁이 역사의 오류속에 파묻혀 왜곡되어온지 벌써 17년. 80년 5월 민주화를 향한 투쟁이 가장 강하게 불타올랐던 광주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아픔의 기억으로 남은 5·18에 대한 인식전환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신문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몸소 체험하고자 5·18을 나홀로 14일 빛고을을 찾아갔다. <편집자>

"이제는 울고 싶어도 눈물조차 나오지 않아. 17년이 지난 지금도 이맘때가 되면 분노와 애통함이 가슴을 아프게 하네. 특유의 사투리로 늘어놓는 낯뜨름들."

망월동 공동묘지 한구석에 제3묘역이라는 표지판이 서 있는 곳. 망월동묘역 묘소앞에 침울한 표정으로 도열해 있는 사람들의 주눅조의 말이다.

초라한 구묘의 역사

5·18묘역은 산길로 약 30분정도 들어가는 아주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출입이 불편함이 매우 많다. 전형적인 공동묘지인 이곳에서는 광주항쟁과는 상관없는 묘지도 눈에 들어온다. 이 묘역은 5·18희생자들이 광주의 유혈진압후 계엄군에 의해 비닐에 싸인 채 청소차에 실려 아무렇게나 묻혀진 장소로 한눈에도 이곳이 희생자를 위해 특별히 조성된 공원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다. 초라한 묘역의 모습은 참배객들 모두를 침울한 분위기에



▲망월동 묘역은 석가탄신일을 맞아 다른지방사람과 외국인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5·18 인식전환작업 활발히 진행

가시적 보상작업으로 그쳐선 안돼

빠지게 하는 듯 하였다. 망월동 묘지, 지금은 5·18 묘역이라 불리는 이곳에 희생자들의 묘지가 조성된 것은 17년전쯤으로 추정된다. 묘역입구 안내판에는 "126명의 희생자들 5월 27일 청소차에 실려 안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묘역의 안내를 맡고있는 묘지 관리인은 "희생자들의 묘가 한곳에 집중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결집력을 갖는다고 하여 학살정권은 제3묘역에서 묘를 파내가면서 생활지원금을 지급

한다는 묘지 분산을 회유했다."라고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던 구묘역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광주항쟁 재조명 한창

근래들어 정부주도의 5·18 인식전환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신묘역 조성작업이 한창 진행중이어서 이장묘를 표시하기 위한 표지판이라고 묘역 안내인은 말한다. 신묘역을 단장하는 모습,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 구묘역과 신묘역에 쳐져있는 오색땀, 돌담등이 5·18 인식전환사업이 한창임을 보여준다.

행사로 진행중이다. 묘역을 돌아보면서 이상한 표지판이 묘소마다 꽂혀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장번호 121-1, 구묘역번호 131-2라는 번호가 적혀있는 표지판. 신묘역 조성작업이 한창 진행중이어서 이장묘를 표시하기 위한 표지판이라고 묘역 안내인은 말한다. 신묘역을 단장하는 모습,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 구묘역과 신묘역에 쳐져있는 오색땀, 돌담등이 5·18 인식전환사업이 한창임을 보여준다.

오색땀을 따라 가본 신묘역. 아직 공사중이어서 황량함과 삭막함이 가득하다. 그 황량함을 속을 힘없이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말을 건넸다. 그는 얼굴에 슬픔의 주름이 깊게 패인 광주형 회생자의 아버지였다.

희생자정신 계승해야

"죽은 아들이 항상 눈에 밟혀. 혁명완성 같은 것은 모르겠어. 지금와서 신묘역을 조성한다든지, 배상을 해준다고 해서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잖아."라며 끝내 눈물 흘리는 할아버지를 뒤로하고 오면서 광주항쟁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5만평 규모의 화려한 묘역, 5·18국가기념일 제정등의 배려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광주항쟁에 대한 새로운 인식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가시적 보상만으로 5·18문제를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것은 모두가 희생자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5·18 그 당시 참혹함은 이제 잊어야 할 악몽이다. 그러나 그때 희생된 이들이 갈구하던 그 어떤 것, 민주·자유화 정신들은 영원히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광주를 떠나왔다.

특별취재반

김용운 기자
최용섭 기자

강단시론

박재용

<사회대 경영학부>



우리 대학에도 이제 학부제가 넓게 시행되고 있다. 내가 몸 담고 있던 경영학과도 무역학과 회계학과와 함께 경영학부로 통합되어 올해부터 과 구분 없이 공동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경영학과 신입생이라고 80명을 마주 보던 예년에 비해 경영학부 신입생 180명을 맞대하니 우선 다양하고 풍성해져서 좋다. 마치 좁다란 1차선 차도가 도로 확장 공사를 통해 3차선, 4차선으로 넓혀진 것 같은 후련함이 느껴진다. 그뿐이 아니다. 매일 마주 대하면서도 조금은 이질감을 느꼈던 옆 방에 계신 다른 과 교수님도 이제 같은 학부 교수님이 되어서 갑자기 가족이 늘어난 것 같은 풍요로움도 좋다. 그리고 숫자가 늘어난 것 만큼 다양한 학생들의 개성도 보기에 좋다.

학부제 정착, 교수·학생 역할

사실상 전통적인 학과 구분이 불필요하게 좁고 분과적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내가 하는 일을 남들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은 때로 독선을 놓고 거짓 권위를 놓고 의사소통의 단절을 낳는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가 다른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같은 과 내에서도, 혹은 같은 전공 내에서도 연구

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은 다른 아닌 교수와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학부제 시행 이후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학생들에게 갑자기 주어진 학문적 선택의 재량권을 학생들이 과연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학생들에게는 이제 과거와 같은 특수한 과목의 이수에 대한 의무가 없다. 따라서 임의의 자기 자신의 흥미와 적성, 그리고 경력목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학교 전체로 본다면 학생은 학교가 생산해 내는 지적 산출물의 수요자가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생산은 시장의 수요에 따라 그 패턴과 산출량이 결정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지적 수요가 고급스럽고 폭위가 있고 실용적일 때 대학이 제공하는 학문의 질도 그 격조를 지킬 수가 있다. 반대로 학생들이 흥미를 과도하게 중시하고 용이한 학점 취득에 큰 비중을 둔다면 학교가 창출하는 지식도 상업주의와 관능주의를 따르는 값싸고 질 낮은 특성을 띄게 될 것이다. 교수와 학생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도 요구된다. 과거에 비한다면 학부제 하에서의 교수·학생 관계는 선택과 파기가 가능한 임의적 관계의 양상을 띄우게 되었다. 그런데 이 임의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인간의

학부제 시대의 사제관계

주제가 조금만 달라져도 서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당연시 되던 학계의 사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본다. 전문성을 증가시킨다는 명분 아래 혼란만 이해하는 세분화된 지식이 존중되고 추구되던 나머지 결국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모이지 못하는 지식에 양산되어 우리가 추구했던 학문은 전체로서 그 효용이 크게 떨어지는 지식의 몸체를 만들었던 경향이 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분업은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분업은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을 감소시키고, 창조적 학습을 저해하고, 최종 산출물을 얻기 위한 상호조정과 통합의 비용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적응 및 학습 능력의 감소와 상호조정 통합 비용의 상승에 직면하여 산업계는 산업조직의 혁신을 단행하였다.

business goal만 성취하고 홀어져 버리는 가상조직, 제품의 설계, 생산, 판매를 별도의 기업을 통해 수행하는 네트워크 조직 등 가상조직의 문제해결 방식이 도입되고 널리 채택되어 학계에서도 암암중에 전통적 경영이론까지 위기로 몰고 가 버렸다.

학부제란 시대의 요구에 대한 학계의 대응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정답은 아니다. 한마디로 학부제란 아직은 우리의 학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an answer' 일 뿐 'the answer'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부제가 지금껏 있어 온 학과제에 대한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장점을 살리고 그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학부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

관계는 추후의 계속적인 관계가 전개되지 않는 경우, 그 상호작용의 질은 흔히 부실해진다. 한번 보고 말 사람에게 자신의 최선을 보여줄 사람은 별로 없다. 자원의 생산과 분배, 그리고 소비를 압도적으로 시장 기능에 일임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역설적으로 조직 (시장과는 반대로 생산과 분배를 위한 인위적 통제와 조정이 행해지는) 이 발전하게 된 연유도 바로 부조리한 인간의 자연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불행히도

생산적·정서적 사제관계 기대

학부제는 참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성실성에 대한 강화를 제도화하고 있지 못하다. 학과제 하에서 학생들이 받았던 성실한 학습에 관한 학과와 교수와 과 학우들이 주던 지속적인 안정된 사회적 압력은 대안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

올해도 변함 없이 봄은 왔고 그 봄이 한창 아름다운 5월의 한 가운데서 스승의 날을 맞았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로 정해진 것이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지만 천지가 푸르면서도 무르익지는 않은 이 날은 오히려 학생, 그 중에서도 대학생의 날이었으면 더욱 어울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학은 가장만큼이나 신성한 자리이며 사제지간 또한 엄숙하면서도 유쾌한 관계이다. 개인적인 행복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그런 것이다. 대학은 개별적 이익을 추구하는 장터가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창조하는 교차적 배양의 장이다. 과거보다 더 생산적이고 정서적 보상이 큰 사제관계를 기대해 본다.

인터뷰

□ 5·18 유족회 강정환 감사

광주항쟁 재인식, 민주화 첫걸음



근래들어 광주항쟁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식전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데. 5·18 희생자와 광주시민들은 1980년 5월 광주사태로 인해 폭도라는 누명을 쓰고 17년간의 한 맺힌 세월을 살아왔다. 늦은감이 있지만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광주항쟁에 대해 함당한 댓가이다. 현재 미흡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차후에 또다른 조치가 있을 것을 예상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정부의 신묘역조성사업과 관련 5·18 유가족협회내 의견대립이 있다는데 무엇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가. 망월동 묘역에서 5·18묘역으로의 이장 작업상에서 상무대장의 이장·국립묘지로의 승격등 유가족의 일부 요구조건이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점차적인 홍보와 충분한 협의의 통해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5·18 재인식작업에 있어서 정부나 국민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5·18 희생자들을 정치라는 틀 속으로 몰아넣는 행동은 삼가한다. 정부는 5·18이 민주화운동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광주항쟁을 자신들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당리당략으로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광주항쟁이 17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새로 조성되는 묘역이 모든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민주화의 성지로 인정받는 것이 하나이고 강당·학교·거리에서 죽어간 희생자들이 묵숨결과 추구했던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이 실현되는 것, 그것이 또하나의 바람이다. <김용운 기자>

특수대학원 신입생 모집

언론정보대학원

1. 모집학과 및 과정
가.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1) 신문방송학과(신문 전공, 방송 전공)
2) 광고학과(광고 전공)
3) 출판학과(출판관리 전공)
4) 대중예술학과(대중예술 전공)
5) 홍보학과(홍보 전공)
나. 언론연구과정: 고졸이상의 학력 소유자로서 언론계 종사자 및 언론계에 진출할 희망자 한정
다. 스포츠·토론전문과정: 사회 각계의 지도자를 포함한 스포츠·토론기법 수업을 원하는 일반인
2. 전형방법
가. 원서교부 및 접수:
•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1997년 5월 26일(월) ~ 6월 5일(목)
• 제5기 스포츠·토론과정: 1997년 5월 26일(월) ~ 6월 13일(금)
나. 시험일시 및 장소:
•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1997년 6월 14일(토) 오후2시 본대학원(체육대학관 5층)
• 제5기 스포츠·토론전문과정: 1997년 6월 28일(토) 오후2시 본대학원(체육대학관 5층)
3. 전형방법
가. 석사과정: 전공, 면접
나. 연구과정 및 언론연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경력참조)
다. 스포츠·토론전문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4. 특전
가.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동문 및 성적우수자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나. 스포츠·토론전문과정: 본교동문 및 공무원 교육계종사자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5. 문의
언론정보대학원 교학과 ☎02)967-7083, 961-0560~1

국제법무대학원

1. 모집학과 및 인원
가.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1) 국제통상법무학과
2) 보험·해상법무학과
3) 지적재산권법무학과
4) 국제조세법무학과
5) 국제환경법무학과
나.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동원
다.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동원
라.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동원
마.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동원
2. 지원자격
가. 4년제대학 졸업자 및 1997학년도 8월 동원제(법학계열)와 다른 학사 학위소지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동원
다.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동원
라.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동원
마.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동원
3.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4. 전형일정
가. 석사·연구과정: 1997년 5월 26일(월) ~ 6월 5일(목)
나. 석사·연구과정: 1997년 5월 26일(월) ~ 6월 5일(목)
다. 석사·연구과정: 1997년 5월 26일(월) ~ 6월 5일(목)
라. 석사·연구과정: 1997년 5월 26일(월) ~ 6월 5일(목)
마. 석사·연구과정: 1997년 5월 26일(월) ~ 6월 5일(목)
5.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 (본대학원 소정양식)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통 (학위등록번호 기재)
다. 대학전학년성적증명서 1통
라. 재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1통
마. 이력서 및 제적증명서 1통 (해당자)
바. 사진4매 (입학원서 붙임용)
6. 문의: ☎ 국제법무대학원 교학과 02)961-0904, 0905 FAX 961-9134

교육대학원

1. 모집분야 및 인원
가. 석사학위과정(○○명)
인문·사회과학계열: 교육행정, 교육공학, 초등교육, 유아교육, 일반사회교육, 역사교육, 지리교육
어학계열: 국어교육, 영어교육, 일어교육, 중국교육
이학계열: 수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환경교육
실업계열: 공업교육, 상업교육, 가정교육, 전산교육
예체능계열: 음악교육, 미술교육, 디자인교육, 도예교육, 체육교육
의학계열: 간호교육
나. 연구과정(○○명): 석사학위과정에 준함
2.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
가. 석사과정
1) (특별전형): 면접시험, 서류심사
가) 교장, 교감, 장학사 및 해당분야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학부전공과 지원하는 본대학원전공이 동일하고, 관련되는 '중등학교 2급교사자격증' 이상을 소지하고 현재에 종사하는 자. 단, 교육행정, 교육공학 지원자는 학부전공과 지원하는 본대학원전공이 동일하지 않아도 됨.
다) 초등교육, 유아교육 지원자는 해당되는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재에 종사하는 자.
라) '실기교사'로서 5년이상 현직에 종사하는 자로 학부전공과 지원하는 본대학원지원전공이 동일할 것.
2) (일반전형): 전공시험, 면접시험, 서류심사
가) 4년제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나) 교육부장관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다) 타전공 출신자도 지원자격을 부여함. 단, 이경우 입학후 소정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석사학위취득은 가능하나 교원자격증 취득은 불가함.
나. 연구과정: 석사과정에 준함.
3. 전형일정
가. 원서교부 및 접수: 1997년 5월 19일(월) ~ 5월 23일(금)
나. 전공시험: 1997년 5월 31일(토) 14:00 ~ 15:30
다. 면접시험: 1997년 5월 31일(토) 15:40 ~ 16:10
라. 합격자 발표: 1997년 6월 9일(월) 14:00
4.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 1부(본대학원 소정양식)
나. 대학졸업(예정)서 1통
다.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통(평균 평점 또는 백분율 환산점수 기재)
라. 주민등록초본 1통(납자에 한함)
마. 교원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바. 재직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사. 동일 명함판사본 3매(입학원서에 첨부)
아. 전형료 40,000원
5. 문의
교육대학원 교학과 ☎02)961-0135~6

산업정보대학원

1. 석사과정
가. 모집학과 및 인원
지역개발행정, 경영정보, 무역정보, 회계, 중소기업, 세무, 기계공, 전자공, 전자제어, 정보통신, 제어계측, 산업공, 화학공, 자동차공, 전파방송, 식품공학, 산업디자인, 스포츠외교(이상 18개 학과)
나. 지원자격
1)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1997년 8월 졸업예정자
2) 기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 지원 학과는 출신 대학의 학과와 동일하지 않아도 가능함
다.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
라. 전형일정 및 장소
마. 특전
1) 본교 동문 및 군인, 공무원은 전 이수기간을 통하여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함
2) 실무경력이 있는 분은 우선적으로 고려함
2. 최고경영자 과정
가. 지원자격: 고교공무원, 공·사기업체 경영자 및 임원, 개인사업자, 기타 사회단체의 간부 등(학력제한 없음)
나.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다. 원서교부 및 접수: 97. 6. 9(월) ~ 6.25(토) (토, 일요일은 휴무)
라. 면접일시 및 장소: 97. 6. 30(월) 13:30, 본 대학원
☞ 교통거리: 서울 강남지역에서 본 대학원까지 30~40분 소요
3. 문의
산업정보대학원 ☎(02)745-5889, (0331) 280-2130~31
인터넷: http://iis.kyunghee.ac.kr/